비교문화연구 제 8 집 2 호, (2002) pp.135-167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주요개념〉 일본식민주의, 식민주의 인류학, 전쟁, 대만, 조선

植民과 戰爭의 日帝人類學(2)[1)]
—臺北帝大와 京城帝大의 人脈과 活動을 중심으로—

전경수*

目 次

1. 序: 왜?
2. 均衡있는 立場의 整理: 어떻게?
3. 植民地의 帝國大學
4. 敎室과 學會: 學派의 형성
   1) 臺北人類學派
   2) 京城人類學派
   3) 두 學派의 비교
5. "大東亞戰爭"의 軍屬人類學
6. 植民에서 戰爭으로: "實用民族學"의 進化
7. 결어: 敗者의 血統

5. "大東亞戰爭"의 軍屬人類學

이미 식민지의 제국대학에서 총장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였던 연구소들의 활동(예를 들면, 경성제국대학의 만몽문화연구소와 대륙문화연구소)에서 본 바와 같이 제국대학의 연구소들은 일본군의 군사적인 침략활동과 무관한 기구들이 아니었다. 특히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1) 이 연구는 2000-2001년도 서울대학교 두뇌한국 21사업 대학교육개혁지원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This was supported by the Grant for Reform of University Education under the BK21 Project of S.N.U.).

의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대륙에서는 학술활동이 군사작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확실하며, 그 과정에서 식민지의 제국대학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구도는 파악되었다고 생각한다.

"1932년 8월 文部省은 戰時體制를 向한 國民의 精神的 統合을 目標로 하여 國民精神文化硏究所를 設置하였다"(柳田國男硏究會 1988: 879). 1933년 만주국이 성립되었고, 이어서 동년 10월에 外務省文化事業部와 關東軍의 設立協力으로 滿日文化協會(약칭 文協)가 登場하였다. 1937년 蘆溝橋 事件과 중일전쟁이 터진 후, 1937년 8월 建國大學令의 公布로 1938년 5월 建國大學이 개학되면서 "五族協和"의 旗幟를 들었다(川村 湊 1996: 202-203). 만주판 日鮮同祖論이 등장한 것이다. 1938년 11월 일제의 大東亞新秩序建設이 제창되었고,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의 새로운 개념으로 아시아를 통치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1938년 國家總動員法의 實施로 臺北帝大의 職員들 중에서도 召集令狀인 赤紙를 받고 動員되었다. 그때 日本軍이 厦門市를 攻擊하였다. 厦門大學의 圖書館과 博物館이 戰爭으로 공격을 받아서 자료들이 산일되었기 때문에, 臺灣總督府에서 大學當局에 뒷처리를 수습하라고 요구가 있었다. 대학당국의 상담 후, 移川 선생과 中國文學 敎授이며 漢文에 밝은 神田善一郎 敎授, 그리고 小生 삼인이 派遣되었다"(宮本延人 1985b: 42). 軍-學 複合의 또 다른 現狀의 일면이다. 軍이 먼저 가서 점령하는 과정에 저질러 놓은 문제들을 政府의 要請에 의해서 學이 해결사로 등장하는 방식이다.

滿洲民族學會는 滿日文化協會의 傘下에서 1942년 설립되었다(川村 湊 1996: 203). 만주를 기점으로 하는 대륙에로의 관심이 증대되었던 결과의 산물이다. 일제의 한정된 물적 인적자원이 모두 대륙으로 집중되면서 조선의 학계는 침체현상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은 일제의 대륙침략 계획과 잘 맞아떨어지는 모습이다. 조선반도는 대륙으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함으로서 일 단계 목표를 위한 임무는 수행

한 셈이다. 기지촌에서 미군들이 빠져나가면서 벌어지는 썰렁한 현상과 지극히 유사한 것이다. 대륙진출 기지로서 조선반도의 역할은 중일전쟁 이후 상당부분이 만주국 쪽으로 넘어갔다.

"日支事變이 激化하여 臺灣은 南進基地化하고, 臺灣總督府는 臺灣에 있는 中國文化의 傳統에 否定的이었고, 臺灣島民의 皇民化運動을 강화하기 위해서 位牌燒却 등의 暴學政策을 强行하였다. 臺灣總督府는 臨時情報部를 設置하여, 대만도민의 世論調査나 世論指導 그리고 啓蒙運動과 皇民化運動을 擔當할 사람을 採用하였다. 移川 文政學部長은 나를 總督府臨時情報部에 派遣하기로 하였고, 金關 教授도 그에 同意하였다"(川平朝申 1983: 54). 1941년경의 일이다.

1941년 12월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에 이어서, 1942년 1월 日本軍의 갑작스러운 南進攻擊(Nelson 1980: 204)이 시작되었다. 12월 8일 宣戰布告와 開戰直後 12월 12일에는 이 전쟁을 "大東亞戰爭"이라고 命名하였다(柳田國男研究會 1988: 865). 國民精神總動員運動(1937년)과 翼贊運動(1940년)은 軍國主義를 위한 官民一體의 國民教化의 組織化 과정이었다. 이에 이어서 전문가들이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고, 거대한 침략전쟁의 그림 속에서 일본인류학계에 부여된 과제는 "1942년 5월 大東亞建設審議會에서 民族研究所의 設置와 大東亞共榮圈百八種族의 民族調査를 骨子로 하는 文教政策答申(으로 진행되었고), … (同연구소의) 設立準備委員長과 幹事를 任命하여, 1943년 官制를 公布함으로서 民族研究所를 發足"(柳田國男研究會 1988: 891)시키는 것이었다.

즉 民族學者가 軍當局에서 일을 하는 國立의 民族研究所를 設立하였고, 從來의 日本民族學會를 그 外廓團體로 改造하였다. 그 學問으로 하여금 大東亞共榮圈의 民族政策을 위한 役割을 담당하라는 대본영의 명령이었고, 후일 民族學에게 "戰犯"의 學問이라는 印象을 안겨준 것이다(石田英一郎 1970: 17). 軍-學複合의 구도가 처음에는 軍旗가 가는 곳에 學旗가 따라가는 체제였다가 다음 단계로는 학문이 군

대에 종속되는 즉 일본민족학은 軍屬이 되는 과정을 밟게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민족연구소의 설립 자체가 민족학자의 전쟁협력이라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종래 학회사에서는 애매하고 부정확하게 서술한 경우가 많다. 그것은 일본민족학에서 타부였다고 생각된다. 그 연구소에는 전후 일본인류학의 기초를 재건한 많은 주요한 인류학자들이 소속되었고, 특히 岡 正雄와 古野清人는 軍部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中生勝美 1999: 21)는 견해에 대해서 필자는 동의한다.

"海南島는 日本軍에 占領되었고, 臺北帝國大學에서는 海南島에 學術調査團을 보내는 計劃이 있었다. 다분히 當局의 要請이 있었던 것 같다. 10數人이 멤바로서 갔고, 金關教授와 나도 그 一員이었다. 目的은 未開發地 海南島의 資源을 探索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배는 軍用物資를 運搬하는 輸送船이었다. 당시 그곳의 治安主體는 海軍의 陸戰隊가 擔當하였고, 우리의 宿舍는 海軍의 兵舍였고, 食事는 兵隊의 食事였다. … 司令部에서는 트럭 한 대를 내주었고, 護衛兵이 따랐으며, 運轉臺의 지붕에는 機關銃이 前方으로 향하고 있었다"(宮本延人 1983: 43-44). 京城帝大가 滿蒙學術調査團을 構成했던 것이나 同一한 脈絡이었다. 따라서 大學次元에서 독자적으로 實施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臺灣과 朝鮮을 共通的으로 統括하는 機關의 命令에 의해서 實施된 學術調査였음을 推測하기란 어렵지 않다. 진행된 모습은 軍의 支援과 協助 그리고 軍과의 同行이 아니면 힘들었던 狀況이다. 學術調査團의 服裝은 軍服과 類似한 것, 다른 裝備도 戰鬪態勢를 갖춘 것이었다. 따라서 軍-學複合의 典型的인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연구소의 설립으로 학문의 전쟁수행 목적을 달성하려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대동아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總力戰研究所라는 것을 설립하여 인류학자들의 동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總力戰研究所는 '國家總力戰에 관한 기본적 調査研究及官吏其他者의 國家總力戰에 관한 教育訓練을 장악' 함을 목적으로 1940년 9월 30일부터 1945년 3

월 31일까지 존속했던 기관이다. 그 연구소는 전쟁수행의 종합적 연구를 하는 것 이외에 문관, 무관, 민간으로부터 연구생을 모집하여 총력전에 관한 교육을 하였다. … 총력전연구소에서 사용한 텍스트에는 … 民族硏究會의 '民族硏究要綱'(1941년 9월) 및 '諸國의 民族硏究施設'(1941년 5월 27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과 民族硏究所의 設立趣旨를 보여주는 1943년 1월 16일의 공문서인 '民族硏究要綱'을 비교하면, 그것은 總力戰硏究所의 문서를 간략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中生勝美 1999: 21-22).

"總力戰"에 대비하는 모습은 일제의 정부가 주도하는 類似學術 단체의 모습을 띤 각종 외곽단체들과 조직들을 만들어냈고, 이러한 활동에는 학자들이 대거 동원되었다. 예를 들면, 南方圈硏究會가 主催하고, 內閣情報局이 後援하는 '南方新建設講座'에 前臺北帝大總長 文學博士 幣原 坦, 東京帝大敎授 宇野圓空, 財團法人南洋經濟硏究所 三吉朋十 등이 講師로 나섰으며(南方情勢 69호, 1942년 7월호), 1942년 11월 2일에는 南方建設에 進出하는 要員의 鍊成機關으로서 政府는 興南鍊成院의 設置를 決定하여 官報에 同院의 官制를 公布하였다. 院長에는 幣原 坦, 鍊成官에는 安藤圓秀, 栗原美能留, 桂 定治郎, 理事에는 千代延三男 등이 기용되었다(南方情勢 75호: 46, 1943년 1월 1일 발행). 심지어는 고고학자인 江上波夫도 군사정보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 동원되었고, 목하 전쟁상황 하에서 진행중인 만주의 민족문제에 대한 보고서(民族硏究所가 發行한 油印物로서, 겉표지에는 검은 도장의 "秘"자와 붉은 도장의 "極秘"가 찍혀 있음)를 남겼다.

海軍民政當局은 現地統治와 開發의 必要로 基本事項을 調査硏究하고 南方建設의 根本對策樹立에 대비하여 속히 南方地域에 關한 學術向上을 期하기 위해서 그리고 南方地域의 豊富한 人的物的資源을 모아서 大東亞戰의 戰力培養에 動員하는 南方唯一의 綜合科學機關으로서 마카사루市(현재의 인도네시아 깔리만딴의 우중반당)에 '마카사루綜合科學硏究所'를 創設하였다. 同硏究所는 現地에 있는 各種試驗

場을 整理統合하고, 大東亞戰域의 各種研究所와 긴밀하고 빠르게 一元的인 綜合的 南方研究를 행하는(南方情勢 81: 36, 1943년 7월호) 목적이었다. 동 研究所는 1943년 7월 7일 支那事變記念日을 期해서 開所式을 擧行하였고, 所長 薗部博士(東大名譽教授, 海軍司政長官)의 밑에 學界構成을 網羅하여, … 科學技術의 突擊態勢를 確立하였다(南方情勢 81: 36, 1943년 7월호 & 南方情勢 82: 39, 1943년 8월호).

대규모의 연구소 설립과 아울러서 제국대학에도 전쟁수행의 목적으로 각종의 연구소들이 준비되었고, 대북제대와 경성제대도 예외일 수 없었다. 臺北帝國大學農學部에 南方資源科學研究所가 設置(1942년 5월 1일자)(古野直也 1991: 247)되었다. 1942년 3월 5일 首相官邸에서 열린 定例閣議에서 臺北帝大에 設置하는 南方資源科學研究所와 함께 南方人文研究所의 創設에 關한 勅令案을 附議決定하였다(南方情勢 78: 44, 1943년 4월호 & 民俗臺灣 20編輯後記, p.48). 이 방식이 후일 1945년 6월 경성제국대학에 적용되어서 대륙자원과학연구소가 설립되었던 것이다.

1943년 3월 15일 勅令으로 대북제대에는 南方人文研究所 設置되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2부에서 주로 文化와 民族調査를 할 것으로 規定하였고, 初代所長에는 移川子之藏가 임명되었다. 專任所員으로는 教授로서 久野芳隆, 小幡淸金, 助教授에 馬淵東一, 賀川英夫이었고, 기타 兼任所員으로서는 文政學部教官중에서 14명이 발령되어 본회(남방토속학회를 말함)와 함께 南方民族學의 천명에 기여할 것이다(南方民族 7권 1 · 2호: 133)라고 하였다. 일본의 민족학(인류학)과 인류학자들은 전쟁의 가열 속도와 더불어 점점 더 전장터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갔다. "보르네오에서 行할 陸軍의 調査는 … 必然的으로 侵略戰爭에 加擔하는 것이었다. 泉가 보르네오 行을 斷念한 것은 그러한 理由에서였다"(山崎柄根 1992: 245). 인류학이나 민족학의 입장에서는 "在來의 正統民族學에 對해 … '文化變動의 科學으로서의 民族學'인 … 實用民族學"(小山榮三 1944: 46)이란 이름으로 진화하

는 상승작용의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1945년 6월 경성제대에 설립된 '大陸資源科學研究所要覽'(1945年)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戰時下 새로운 資材를 要求하는 마당에 研究所는 設立되었다. … 所員은 각자 從來 屬한 機關 내지 學部의 것들을 利用하는 상태다. 研究所에 附與된 使命은 朝鮮滿蒙北支를 하나로 엮는 强力한 自給圈建設을 目的으로 하는 圈內資源의 急速한 開發과 高度의 利用에 관한 基礎研究에 있다. … 所長에 3年, 所員에 2年의 任期를 附與한다. 有能하지 않은 者는 淘汰된다. 昭和20年 6月 5日"(今村 豊 1945: 4).

"所長은 京城帝國大學教授 中에서 朝鮮總督府가 補하고, 所長은 京城帝國大學總長의 監督을 받아서 研究所 事務를 管掌한다., 所員은 京城帝國大學의 教授 及 助教授 中에서 朝鮮總督府가 補하고"(5-6), 研究分科(4部): 地下資源, 地上資源, 人的資源(人的資源의 心理學的 社會科學的 調査研究, 人的資源의 醫學的 人類學的 研究), 調査部으로 편성하였다. 業績發表機關誌刊行의 명칭은 '大陸研究'(定期), '大陸資源科學研究所研究報告'(不定期), '大陸資源科學研究所紀要'(不定期)로 정하였고, 研究會, 講演會, 展覽會 等 開催하는 것으로 규약되었다. 職員에는 所長 1名(今村 豊), 所員(教授 9名; 助教授 6名), 囑託(教授 7名, 助教授 1名, 講師 2名, 豫科教授 3名, 法文學部長, 醫學部長, 理工學部長, 附屬圖書館長, 學生課長, 保健所長, 會計課長, 技手), 調査部室에 6名, 事務室에 7名이 배속되었고, 所員에는 秋葉隆(教授), 泉 靖一(助教授)의 이름이 包含되어 있다. 囑託은 따로 區分되어 있다. 本年研究計劃은 今村 豊(人的資源으로서의 蒙古人 及 移住漢人의 體能體格의 研究, 人的資源으로서의 滿洲國內의 漢人移住民의 研究, 朝鮮人의 戰鬪力과 體格과의 關係에 關한 研究, 朝鮮人標準體位의 決定), 秋葉 隆(滿洲에서의 移住漢人의 社會構造: 泉 共同), 泉 靖一(蒙古人의 人口, 特히 幼靑年層의 實態, 朝鮮에서의 農民離村의 研究, 滿洲에서의 移住漢人의 社會構造: 秋葉 共同)으로 구성

되었다.

大陸資源科學研究所要覽에서 읽을 수 있는 흥미로운 問題는 이 研究所가 戰爭準備를 위해서 帝國大學의 教授들을 動員했다는 事實이고, 動員된 教授들은 모두 戰爭에 必要한 資源의 獲得을 위한 基礎調査에 臨했고, 그 중에서도 所長인 今村 豊(體質人類學者)는 朝鮮人의 戰鬪力에 關한 體質人類學的인 研究를 試圖했다는 점에서 戰爭과 人類學의 關聯性을 새삼스럽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日帝植民地와 戰爭이 결합된 상황에서 전개된 軍-學複合의 人類學 즉 軍屬人類學의 實狀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6. 植民에서 戰爭으로: "實用民族學"의 進化

15년 전쟁이 시작되면서 일제의 식민지는 전쟁수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동원되었고, 총력전을 위한 동원령에 의하여 인류학자들도 식민지 행정에 필요한 조사로부터 전쟁수행과 점령지의 관리를 위한 조사에 파견되는 임무의 전환을 경험하였다. 현장에 출동하는 인류학자들의 직함도 교수와 연구원으로부터 전임촉탁과 사정관으로 바뀌었다. 그들을 움직이는 사령장은 총독부와 문부성으로부터 내각과 대본영으로 승격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인류학자들은(일부이긴 하지만) "實用民族學"이란 용어로 화답하였다.

"實用民族學이 植民地統治의 有力한 武器"(杉浦健一 1941: 179)라는 태평양 연구자의 주장과 함께 "在來의 正統民族學에 對해 … '文化變動의 科學으로서의 民族學'인 … 實用民族學"(小山榮三 1944: 46)을 내세운 사회학자 小山는 전쟁수행을 위한 노무자원을 중심으로 한 두터운 한 권의 冊을 출판하였다. 남방에서 출발한 "實用民族學"의 아이디어는 북방으로도 전달되었다. 今村 豊(體質人類學者)는 朝鮮人의 戰鬪力에 關한 體質人類學的인 研究를 試圖했다는 점에서 戰爭

과 人類學의 關聯性이라는 틀로부터 피신할 수가 없게 되었다. 식민에서 전쟁으로 진화한 면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가장 학술적인 업적을 심도있게 진행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는 카노타다오 한 사람의 인류학적 연구역정에서도 우리는 식민에서 전쟁으로 진화해간 일본인류학의 정체성을 발견해낼 수 있다. 대만총독부 경무국의 촉탁에서 육군성 사정관으로 변신한 모습이 변호하는 것이 일제시대 일본인류학의 주된 흐름이었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25)]

인류학자들은 陸軍司正官(보르네오 행)이나 海軍囑託(서부 뉴기니 행)의 직함으로 軍屬이 되어서 전쟁에 동원되었다. 그들의 임무는 군당국의 세밀한 작전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었고, 점령지의 군정에 가담한 사정관들은 군사작전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한 셈이다. "南方占領地軍政을 위한 司政官은 軍의 工兵과 같은 役割(이고) … 實로 司政官은 우리 大日本帝國의 工兵이다. 文官民間出의 司政官은 身에 寸鐵을 帶하고, 極히 最近까지 敵地였던 곳에서 항상 攻擊의 危險에 놓여 있고, 敵意를 喪失한 異民族의 統治(를 위하여) … 細密한 勇氣가 必要하다. … 司政官은 統帥權에 吸收되어 行政에 임하고, … 大日本帝國의 工兵으로서 直接南方의 建設에 臨한다. 陸軍司政官, 海軍司政官의 呼稱이 있다"(匿名 1943: 5).

"鹿野가 北보르네오로 간 것은 1944년 3월 陸軍省으로부터 同地의 民族調査 依賴가 있었기 때문이다. … 鹿野보다 앞서서 보르네오 舊英領域의 民族調査를 擔當했던 사람은 土方久功(陸軍司政官이었음, 필자 註)으로서, 그는 보르네오 滯在中 胃潰瘍의 病名으로 싱가포르와 홍콩을 경유하여 病院船으로 內地에 後送되면서 鹿野에게 後續作業을 맡겼다는 이야기가 있다. 土方은 3월 17일 大阪天王寺의 赤十字病院에 入院되었다. … 보르네오 守備軍의 北보르네오調査團民族班. …

---

25) 鹿野忠雄은 警務局 警務課와 理蕃課의 囑託을 兼務하였다. 囑託으로서 月給 70을 받았다. (臺灣總督府 1936: 146-148).

그 民族調査는 太平洋協會와 連絡을 한 京城帝大敎授 尾高朝雄을 通하여 泉靖一에게 얘기가 되었고, 軍隊에서 除隊한 그에게 陸軍司政官이라는 身分을 附與"(山崎柄根 1992: 242)하였으나, 이즈미는 그 자리를 거절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에 鹿野가 들어가면서 운명이 엇갈리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調査要員의 辭令은 1944년 3월 22일 附로 發令되었다. 辭令에는 '陸軍專任囑託'으로 記錄되어 있고 奏任官待遇였다. 發令者는 內閣이었다. … 司政官으로 派遣되는 경우에는 辭令에 '任陸軍司政官'이라고 記錄된다. … 실제로는 專任囑託과 司政官은 軍政要員이라는 점에서 差異가 없고 實質的인 區分도 어려운 것이다. 鹿野는 奏任官待遇로서 陸軍大佐相當이었기 때문에 高等官3等으로서 經歷으로 비추어보면 異例的인 待遇였다. … 高等官3等은 調査를 圓滑하게 하기 위해서였다"(山崎柄根 1992: 245-246).

大陸에로의 前進基地로서 朝鮮, 東南亞와 南洋으로의 前進基地로서 臺灣이라는 意味賦與는 大東亞共榮圈 槪念의 確定과 公布로 實踐에 이르게 된다. 그러한 帝國의 目的을 實踐하기 위한 植民地의 두 帝國大學은 共榮圈 實踐의 目的에 맞는 硏究所를 設置 運營하고 硏究者들로 하여금 그러한 目的에 맞는 硏究를 하도록 要求 및 支援하였다. 日本 本土에서는 그러한 目的을 實踐하기 爲하여 人類學者들을 動員하여 民族硏究所를 運營했다. 日本 本土의 民族硏究所(1943年 1月 設立), 臺灣 臺北帝國大學의 南方資源科學硏究所 및 南方人文硏究所(1943年 設立), 朝鮮 京城帝國大學의 大陸資源科學硏究所(1945年 6月 設立)는 모두 日本帝國의 大東亞共榮圈 建設과 大東亞戰爭 수행이라는 하나의 目標를 向해서 活動하였던 서로 다른 地域의 組織들이었다. 여기에 參與했던 硏究者들은 모두 侵略戰爭의 協力者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大東亞 戰爭의 勃發以來, 幾百萬의 邦人이 나가서 東亞의 天地에서 朝夕으로 異民族과 相接하고 同甘共苦, 서로 相携하고 있는 狀況으로

미루어볼 때, 다시금 民俗硏究의 必要를 痛感하고 있다. … 好事家의 趣味나 道樂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切實한 問題가 되고 있다. 學者도 軍人도 爲政者도 民間人도, 民俗에 깊은 뿌리를 둔 여러 가지의 問題에 當面하고 있다. … 非常時軍政下에서 만약에 民俗이 無視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 世情이 平時로 돌아오게 되면, 民俗이라는 것은 重視되는 것이 明白해진다. … 臺灣은 南方圈民族硏究의 基地를 構成한다고 말할 수 있다"(移川子之藏 1943: 1). 移川는 〈民俗臺灣〉의 卷頭語로 작성한 글에서, 전쟁기운이 고조되면서 군정이 확대되면, 인류학이나 민속학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 것 같다.

환언하면, 인류학이란 학문의 전쟁참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의 예측은 빗나갔고, 그도 전쟁협력을 위한 연구소의 소장직도 맡았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마카사루까지 출장을 나가기도 하였다. 그의 제자인 宮本延人는 司政官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馬淵東一는 남방인문연구소의 조교수 발령을 받음으로서 전쟁협력을 위한 연구소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예외는 없었다. 집단주의가 강한 일본사회의 일면을 보이는 측면으로서 모두 軍屬人類學의 건설에 동참한 셈이다.

"1943년 8월 頃부터, 海軍南方政務部가 資源調査의 目的을 갖고 西뉴기니아(現在의 이리안자야)에 派遣한 調査隊의 隊員이 조금씩 쳐지기 시작했다. 가달카날戰 以來 아메리카의 反擊이 强해졌기 때문에, 調査는 그 해 저물어서는 中止되었다"(山崎柄根 1992: 220). 당연한 얘기이지만, 이러한 학술조사라는 것도 결국 일본군이 밀리는 상황에서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장터에서 군대가 희생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속으로 동원되었던 학자들도 전쟁의 희생물이 되었다. 南方人文硏究所 專任所員 4명 내에서 2명은 事故를 당했고, 한 명은 셀레베스와 쟈바 出張에서 歸還不能이 되었으며, 硏究所도 末期의 苛烈찬 戰局下에서 開店休業에 가까운 狀態에 들어갔다. 아직도 일본의 인류학계에서 미묘한 문제가 되어있는 鹿野忠雄의 행

방불명 사건도 이때 발생한 것이다.

"日米開戰 後 1942年 頃 南太平洋의 戰局이 緊迫하게 되었을 무렵, 大本營의 兵力不足으로 在鮮 第二十師團을 朝鮮軍에서 빼내어 南太平洋 섬으로 보내기로 決定하여, 釜山에서 8천 톤 내지 5천 톤의 배로 船團을 組織해서 1943年 1月 뉴-기니아의 웨왁으로 急派하였다" (古野直也 1990: 221-222). 조선군사령부 제 20사단의 뉴-기니아 웨왁으로의 급파를 결정한 大本營의 움직임과 泉 靖一가 해군자원조사대로서 뉴-기니아에 파견된 동일한 시점은 전혀 우연한 사건들이 아니다. 당시 전국의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움직임이 대본영에 의해서 작전상 나타난 일들이다.

멩긴(Oswald Menghin)의 저서 석기시대 세계사를 번역한 책의 序文에서 "皇紀 2603年"과 "聖戰下 아시아 주체"(岡 正雄: 1943)를 역설한 일본 '民族硏究所'의 岡 正雄(1898-1982)와 함께 '京城'帝大의 泉 靖一는 '滿洲'民族學會(1942년 5월 설립) 主催의 座談會(1944년 1월)에 參席하여, "뉴-기니아土人의 生活調査의 狀況 및 오로촌 族의 比較에 대하여"라는 報告를 하였다(川村 湊 1996: 207). 京都學派의 태두라고 불리는 今西錦司는 1942년 大興安嶺探險 출발 전에 軍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였으며, 1944년 4월 民族硏究所의 분소인 西北硏究所의 소장에 취임하여 내몽고의 張家口에 부임하였다. 인류학과 대본영의 연결고리는 민족연구소와 그 연구소의 주역인 오카 마사오의 역할에서 발견된다. 당시 일본인류학은 오카 마사오를 정점으로 대본영의 군사작전을 위하여 총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소위 "實用民族學"의 실질적인 모습이었다고 생각된다.

7. 결어: 敗者의 血統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서구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

본을 필두로 하여 동아시아의 학문을 구성하는 일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보편성보다는 문화의 특수성에 관한 관점의 선점을 특기로 하는 인류학이라는 학문의 성격을 참작할 때, 모방이라는 과정을 통한 인류학의 발전은 한계가 있다. 서구의 학문적 틀과 관점을 모방해 온 습관이 식민주의라는 현상과 관련된 인류학의 논의에서도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오리지날리티'를 추구하기보다는 '렌트'를 하는 형식에 젖어들게 마련이다.

서구에서 식민주의를 논하는 인류학의 구도가 일본의 인류학계에 수입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일본의 인류학에 적용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식민과 전쟁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어야 할 일제인류학을 식민이라는 하나의 축으로만 보도록 강제하는 구도를 창출하게 된다. 동일한 내용을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과점을 적용시키는가 또는 어떠한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역사를 풀어내는 과정과 결과는 달라지게 마련이다.

일본의 패전 직후 岡 正雄가 회장이었던 日本民族學協會에서 펴낸 民族學硏究는 1948年에 編輯人이 石田英一郎으로 固定된다. 1949年에는 編輯委員會가 構成되었고, 石田와 함께 "編輯에 參加한 사람은 泉 靖一, 馬淵東一, 宮本延人이다. 宮本과 馬淵君은 臺北大學, 泉君은 京城大學에 있었다. 北은 滿洲.蒙古에서부터 南은 인도네시아, 뉴-기니아에 이르는 東亞各地의 調査硏究에 오랜 十數年을 넘는 實地의 訓練을 쌓은 우리나라에 稀少한 民族學者다"(石田英一郎 1949: 83). 植民地의 帝國大學에서 民族學을 鍊磨한 사람들을 中心으로 編輯委員會를 構成했다는 것은 그만큼 植民地에서의 民族學的 活動이 戰後 日本民族學會의 中樞的인 根幹이 되었다는 점을 認定하는 것이다. 1950年부터는 宮本延人 대신에 미크로네시를 비롯한 태평양제도의 전공자인 杉浦健一가 編輯委員會에 參加하였다. 日帝時代의 三大植民地를 對象으로 訓練을 集中的으로 받은 세 사람으로 編輯委員會를 鼎立했다는 얘기다.

日本人類學은 그만큼 植民主義와 不可分의 因緣을 갖고 있다는 점을 指摘할 수 있는 대목이다. "泉는 朝鮮을 基盤으로 大陸에서, 馬淵는 臺灣을 기반으로 東南아시아로, 杉浦는 미크로네시아를 中心으로 活躍했던 사람들이다"(Shimizu 1998). 그들은 모두 植民地에서 帝國主義의 要求에 應하는 作業을 적지 않게 하였던 經歷들을 갖고 있었다. 植民地時代 戰爭에 協力하였던 日本의 人類學은 敗戰과 함께 敗者의 地位를 賦與받을 수밖에 없었다. 戰爭과 人類學은 한통속이었기 때문이다. 〈民族學硏究〉의 編輯陣 構成이 그러한 雰圍氣를 實質的으로 뿐만 아니라 象徵的으로 반영하고 있다.

戰後 臺灣에서는 植民地時代의 人類學的 作業에 관한 批判도 있었지만, 상당한 部分들이 繼承되는 모습도 보였다. 1945년 以後 韓國(過去의 朝鮮)에서는 植民地時代의 人類學的 作業에 대한 繼承이라는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繼承 정도가 아니라 最近까지 거의 言及이 없었다. 植民地時代와 關聯된 것들은 內容을 莫論하고 徹底하게 破壞되는 經驗을 겪었다. 破壞는 發說禁忌의 雰圍氣를 創出하였다.

臺灣에서 活動했던 日本人 人類學者들은 敗戰 後 여러 가지 經路를 通해서 回顧나 反省의 形態로 過去의 일들에 對해서 言及한 적이 있었다. 韓國에서는 전혀 그러한 일이 없었고, 韓國에서 活動했던 人類學者들은 모두 約束이나 한 듯이 입을 다물었다. 臺灣에서 歸還한 學者들은 發說의 機會를 가졌으나, 朝鮮으로부터 歸國한 學者들은 沈默의 一貫이었다. 이제 그들은 모두 저 世上 사람들이 되었다. 發說은 永遠히 發說로 남았지만, 沈默은 永遠히 沈默으로 남게 되었다.

現在 日本人類學界에서 이룩하고 있는 臺灣이나 동남아시아 그리고 南中國 方面의 業績에 比해서 韓國이나 大陸方面의 業績이 훨씬 뒤지고 있는 理由는 크게는 政治的인 狀況의 變化로부터 起因되겠지만, 人類學이란 學問의 內部로부터 생각해 본다면, 戰後의 發說과 沈默의 對照的 狀況과 無關하지 않은 것 같다. 發說함으로서 敗者의 血統을 벗어나는 契機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沈默함으로서 永遠히 敗

者의 血統을 벗어나지 못하는 셈이 되어버린 것 같다. 問題는 過去와 現在의 問題다. 過去는 歷史이지만, 歷史에 對한 생각은 現在 記憶의 形態로 存在한다. 沈默은 記憶을 監禁하려하지만, 監禁된 記憶은 다른 方向으로 에너지를 보낸다. 現在의 存在를 歪曲하는 方向으로 監禁된 記憶의 에너지는 作用하고 있다. 그것이 國際政治的 狀況에서도 반영되고, 人類學이란 學問의 內部에서도 進行되고 있다.

懺悔와 反省을 强要하는 斷罪와 詛呪는 感情戰爭일 뿐이다. 그러한 單純化된 二分法은 歷史의 認識과 再解釋에 아무런 營養價가 없다. 오히려 毒素로 作用할 뿐이다. 죽은 者는 말이 없다. 그러나 巫堂을 통한 腹話術(glossalia)은 可能하다. 거짓을 남기지 않는 歷史는 沈默으로 因해서 조각으로 갈라지기 마련이지만, 흩어진 조각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作業은 現在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서 記憶이라는 現狀으로 連續된다. 그 시나리오를 얼마나 잘 構成하느냐 하는 것이 記憶의 能力이다. 죽은 者는 말이 없지만, 말없이 죽은 者들은 巫堂의 입을 빌어서 말을 하고 싶어 한다. 산 者들은 그들을 爲한 記憶을 構成할 수 있다. 말하지 않고 죽었다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죽은 者들의 陳述을 기초로 산 者들의 努力이 어우러져서 記憶으로 再構成하는 것이 學史에 關聯된 民俗誌的인 作業이라고 생각한다.

"'靑丘庵'이라고 愛稱한 新築後間에서 逝去"(島本彦次郎 1955: 303)한 아키바 다카시는 愛知大學의 硏究室 앞에 天下大將軍의 장승을 세워두고, 집에는 조선식 암자를 짓고, 朝鮮에서의 生活經驗을 引揚後 日本의 硏究室과 집에 再現하려는 努力을 하였다. 過去에 對한 記憶은 살아있었지만, 그가 過去에 對해서 沈默으로 一貫한 理由는 무엇인가. 浪漫과 追憶만을 간직하려고 했지, 現實은 沈默 속에 가두어 두었던 것이다.

泉와 馬淵는 侵略戰爭의 雰圍氣가 高潮되기 始作하는 滿洲事變(1931년)과 中日戰爭(1937년) 동안에는 스승의 밑에서 人類學에 入

門하는 硏究者의 길을 걸었고, 太平洋戰爭(1941년) 勃發 時期에는 專門分野의 獨立的인 硏究者로서 活躍하는 契機를 맞이하였다. 이들이 人類學分野의 硏究者로서 活動했던 十年 동안이란 期間은 必然的으로 戰爭을 避할 수 없는 狀況이었다는 점을 잊어버리면 안된다. 그들이 人類學的인 現地硏究 作業의 機會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도 戰爭과 關聯된 部分임을 度外視할 수 없고, 連續되는 戰爭의 渦中에서 侵略戰爭을 爲해서 動員되는 學問的인 立場에 對한 苦悶과 困境도 戰爭과 關聯된 部分임은 分明한 事實이다. 이 點에 대해서 깊이 있는 分析과 理解 그리고 密度있는 批判이 지금 人類學을 공부하는 世代에게 지워진 責任이자, 그 過程에서 새로운 人類學의 問題를 얻어낼 수 있는 契機가 될 수 있을 것으로 確信한다. 日本人類學의 正體性 具現과 人類學이라는 輸入된 學問의 土着化(indigenization)에 直結되는 問題가 여기에서 發見될 수 있을 것이라고 確信하는 것은 無理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가지의 비교는 다음의 비교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비교는 끊임없는 작업을 요구하고 있다. 제이차세계대전 중에 연합군과 미군의 전승을 위해서 활동했던 정보기관인 OSS에는 적지 않은 인류학자들이 참여하였다.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 이라는 일본연구서다. 그렇다고 해서, 그 후에 미국인류학회나 학계에서 대전중의 정보기관에 참여했던 학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일은 드물었다. 1960년대 후반 타이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에서 활동했던 미국인류학자들에 대한 비난은 궁극적으로 정보기관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학계로부터 추방하는 과정을 불러일으켰고, 그중의 한 사람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1971년 미국인류학협회의 소위 미드 위원회(Mead Committee)라는 위원회가 타이와 관련된 카멜롯 프로젝트를 다루었던 것이다. 간단히 언급한다면, 이차세계대전과 베트남전이라는 상황의 차이점이 만들어낸 결과다. 인류학자들의 전쟁 참여에 대한 평가는 시대를 달리하여 다른 판

단을 요구하고 있다.

도덕적 판단이 앞지르기 전에, 우리는 인류학자의 침략전쟁 참여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침략전쟁에 협력한 인류학자들에 대해서 전범(石田英一郎 논문참조)의 지위를 부여하고, 전범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미래의 인류학자들을 위한 윤리지침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全京秀

1999 韓國人類學 百年. 서울: 일지사.

鄭圭永

1999 "콜로니얼리즘과 학문의 정치학: 15년 전쟁 하 경성제국대학의 대륙연구", 教育史學研究 9: 21-36.

赤松智城

1926 "古代文化民族からマナの觀念に就いて", 民族 1(3-6).

1929 "北方民族の巫術の起源に就いて", 宗教研究 新6(3): 79-88 & 同 6(5): 95-104.

1935 "滿洲旗人の家祭", 民族學研究 1935年 第2號: 1-9.

赤松智城 · 泉靖一

1938 "赫哲族調査報告", 民族學研究 第4號: 12-33.

秋葉隆

1927 "博物館巡禮", 民族 2(6): 123-128.

1928a "博物館巡禮", 民族 3(6)까지 連載한 것.

1928b "奠雁考: 朝鮮婚姻風俗の一研究", 民族 3(6): 63-86.

1928c "女國の多夫婚姻に就いて", 社會學雜誌 51: 1-26.

1929a "女人國の神聖婚姻", 宗教研究 新6(2): 1-14.

1929b " 'Intenstive Method' に就いて", 社會學雜誌 57: 1-11.

1931 "朝鮮の巫稱に就いて", 青丘學叢 3: 192-194.

1932a "書評: 日本神話の研究(松本信廣 著)", 青丘學叢 10: 154.

1932b "踊る巫と踊らない巫: 朝鮮における巫の一分類", 宗教研究 新 9(3): 27-41.

1933a "巫女の家", ドルメン 1933年 4月號: 116-118.

1933b "假面を祀", ドルメン 1933年 1月號. 9-11.

1934 "滿洲薩滿教の家祭", 宗教研究 新11(1): 112-128.

1935a "薩瑪の巫祭と大仙の巫術: 滿洲巫俗踏査報告", 民族學研究 1935年 第2號: 15-35.

1935b "滿洲シャーマン見學メモ", ドルメン 4(2): 52-57.

1936 "オロチョン・シャーマニズム: 大興安嶺東北部オロチョン族踏査報告(2)", 民族學研究 1936年 第4號: 30-42.

1937 "蒙古人と漢文化: 文化傳播の一統計", 青丘學叢 27: 1-30.

1938 "滿洲青年の職業意識", 社會學 5(秋季號): 288-290. (日本社會學會年報).

1939 "多島海巡航記", 朝鮮多島海旅行覺書. アチック・ミューゼアム編. 東京: アチック・ミューゼアム. pp.1-7.

1944 "オロチョン族の社會と文化", 社會學研究 1: 342-355.

1949 "巫と火: 朝鮮シャーマニズムにおける聖火の行事", 民族學研究 14(1): 13-16.

鈴木榮太郎

1929 "農村社會學研究法", 社會學雜誌 58: 1-23.

1935 "屋敷神考", 民族學研究 第2號: 72-87.

1940a "社會人類學上の研究としてのエンブリー氏の'スエ村'と日本農村社會學", 民族學研究 第4號: 47-67.

1940b "美國農村社會學の事", 社會學 7: 370-373.(日本社會學會年報).

中生勝美

1997 "民族研究所の組織と活動: 戰爭中の日本民族學", 民族學研究 62(1): 47-65.

1999 "地域研究と植民地主義人類學", 地域研究論集 2(1): 19-36.

古野直也

1991 臺灣軍司令部 1895-1945. 東京: 國書刊行會.

古野清人

1943 "南方圈の宗教", 南方年鑑(昭和18年版). 東京: 南方年鑑刊行會.

匿　名

1939 "沿革", 創立三十年記念論文集, 臺灣總督府博物館編. 臺北: 臺灣博物館協會. pp.3-7.

匿　名

1943 "占領地司政官", 南方情勢 75: 5.

岡正雄(譯)

1943 メンギーン著 石器時代の世界史(上). 東京: 聖紀書房.

馬淵東一

1942 "インドネシア農耕民と土地", 南方亞細亞の民族と社會, 滿鐵東亞經濟調査局〈新亞細亞〉編輯部. 東京: 大和書店. pp.135-151.

1943 "南方圈の社會", 南方年鑑(昭和18年版). 東京: 南方年鑑刊行會. pp.155-182.

1947 "移川先生の追憶", 民族學研究 12(2):

1973 "〈南方土俗〉景印本刊行에 寄" 南方土俗(南方民族) 影印本. 臺北: 東方文化書局景印. pp.2-8.

馬淵 悟

1987a "臺灣と歷史: 解說", 宮本延人, 瀨川孝吉, 馬淵東一, 臺灣の民族と文化. 東京: 六興出版. pp.207-213.

1987b "臺灣の人類學史: 解說", 宮本延人, 瀨川孝吉, 馬淵東一, 臺灣の民族と文化. 東京: 六興出版. pp.236-239.

1997 "宮本延人", 臺灣原住民研究 2

大川正彥

1987 "植民地政策: 解說", 宮本延人, 瀨川孝吉, 馬淵東一, 臺灣の民族と文化. 東京: 六興出版. pp.214-218.

黑澤隆朝

1973 臺灣高砂族の音樂. 東京: 雄山閣.

移川子之藏

1919 "比律賓北呂宋 イフガオ族に就いて", 人類學雜誌 34(7): 221-234.

1919. 2. "南海蠻夷小論" 1919년 2월경에 타이와 캄보디아의 沿岸을 항해 중에 쓴글임에 분명. 9페이지 짜리. "廣い人類學の見地から南海の人種について極めて包括的に 述する". 주 내용은 體質人類學的인 類型別 分類에 기초한 것.

1927a "歐洲人類學雜記", 人類學雜誌 42(4): 146-154.

1927b "北歐의 旅", 民族 3(1): 96.

1930 "臺灣東部阿眉族の稱呼パンジャに關する二三の考察", 民俗學 2卷 3號: 149-159.

1934 "Patuを繞く太平洋文化交涉年代と臺灣發見の類似石器",

臺北帝大史學科研究年報 第1輯.

1935a "ローランド・ディクソン教授の逝去", 南方土俗 1935년 7월호, p.88.

1935b "故ローランド・バレッジ・ディクソン教授, Prof. Roland Burrage Dixon(1873-1934)", 民族學研究 1935年 7月 pp.156-163.

1938 "和蘭ハーグ國立文書館所藏臺灣關係文書目錄", 臺北帝國大學文政學部史學科研究年報 5: 1-76. 1937年 發行.

1939a "姓名としての高砂族個人・家族・氏族名", 創立三十年記念論文集,臺灣總督府博物館編. 臺北: 臺灣博物館協會. pp.323-336.

1939b "國際人類學・民族學學術會議と想出", 民族學研究 5(2): 118-124.

1942 "南洋の民族移動", 南方亞細亞の民族と社會, 滿鐵東亞經濟調査局〈新亞細亞〉編輯部. 東京: 大和書店. pp.11-36. *서양문헌들을 중심으로 소개.

1943a "民俗研究の現實性", 民俗臺灣 20: 1.

1943b "南方民族の社會", 西南太平洋, 每日新聞社 編. 東京: 每日新聞社. pp.16-31.

宮本延人

1948 "戰後の臺灣民族學界を省", 民族學研究 13(4): 425-428.

1982a "私の臺灣紀(1)", 松前文庫 30:
1982b "私の臺灣紀(2): 土俗學人種學研究室의 建設", 松前文庫 31:
1983a "私の臺灣紀(3)", 松前文庫 32:
1983b "私の臺灣紀(5)", 松前文庫 34: 33)
1983c "金關丈夫教授と私", エトノス 21: 41-45.
1985a 臺灣の原住民族: 回想. 私の民族學調査. 東京: 六興出版.
1985b "私の臺灣紀(13)", 松前文庫 42:
1985c "私の臺灣紀(14)", 松前文庫 43:
1985d 臺灣の原住民族: 回想 · 私の民族學調査. 東京: 六興出版.
1988 日本統治時代臺灣における寺廟整理問題. 奈良: 天理教道友社.

宮本延人, 瀨川孝吉, 馬淵東一
1987 臺灣の民族と文化. 東京: 六興出版.

川平朝申
1983 "追憶 金關丈夫博士", エトノス 21: 53-55.

倉田勇
1992 "馬淵東一", 社會人類學年報 18: 149-168.

岡田 謙
1936 "原始社會における社會關係", 臺北帝國大學文政學部哲學科研究年報第3輯. 杉浦健一1941 "民族學と南洋群島統治", 大南洋: 文化と農業, 太平洋協會 編. 東京: 河出書房. pp.173-218.

淸水昭俊
1995 "民族學と文化人類學: 學會の改稱問題", 民博通信 70: 8-27.

神田喜一郎 · 移川子之藏
1938 "厦門大學文化陳列所 支那明器の保管", 博物館研究 11(10): 63.

臺灣總督府
1936 臺灣總督府及所屬官署 職員錄. 臺北: 臺灣時報發行所.
1939 臺灣事情(昭和14年版). 臺北: 臺灣總督府.

臺灣教育會

1939a 臺灣教育沿革誌. 臺北: 青史社.

1939b 臺灣教育. 臺北: 臺灣教育會.

大林太良

1988 "馬淵東一教授を悼む", 民族學研究 53(3): 329-330.

鹿野忠雄

1944 "紅頭嶼ヤミ族と飛魚. 附 比律賓バタン諸島의 飛魚漁", 平野義太郎 編, 太平洋圈(民族과 文化 上卷). 東京: 河出書房. pp.503-573.

山崎柄根

1992 鹿野忠雄. 東京: 平凡社.

山路勝彦

1999 "'梁山泊'の人類學, それとも?: 臺北帝國大學土俗人種學研究室", 關西學院大學社會學部紀要 83: 73-89.

金關丈夫

1941 "皇民化と人種の問題", 臺灣時報 23(1): 24-29.

네즈 마사시

1983 "〈ドルメン〉", エトノス 21: 34-37.

中村哲

1983 "金關丈夫先生像", エトノス 21: 39-40.

宋文薰

1983 "金關丈夫先生", エトノス 21: 49-51.

佐口透

1976 "1945年滿鮮紀行: 終戰前後の日本海域", 日本海文化 3: 33-51.

角田文衛

1983 "金關丈夫先生", エトノス 21: 72-73.

松倉鐵藏

1926 臺灣博物館の手引. 臺北: 臺灣總督府博物館.

尾崎秀眞

1939 "總督府博物館の思出", 創立三十年記念論文集, 臺灣總督府博物館編. 臺北: 臺灣博物館協會. pp.373-375.

尾高朝雄

1939 "京城帝國大學蒙疆學術探險隊の成立と探險旅行の經過", 蒙疆の自然と文化: 京城帝國大學蒙疆學術探險隊報告書, 京城帝國大學大陸文化研究會 編. 東京: 古今書院. pp.3-17.

1940 "國家の目的と大陸經營", 大陸文化研究, 京城帝國大學大陸文化研究會 編. 東京: 岩波書店. pp.1-37.

速水滉

1940 "序言", 大陸文化研究, 京城帝國大學大陸文化研究會 編. 東京: 岩波書店. pp.1-5.

今村豊

1934 "內蒙古人計測旅行雜記", ドルメン 3(10): 725-729.

1935a "珍本 雞林醫事", ドルメン 4(1): 58-60.

1935b "朝鮮石器時代人", ドルメン 4(6): 188-192.

1945 "設立趣旨", 大陸資源科學研究所要覽(昭和20年). 京城: 大陸資源科學研究所.

堀井五十雄 · 正木正明 · 宮本潔

1942 "赫哲族調査報告", 人類學雜誌 57(9): 377-385.

鈴木誠 · 平野伍吉

1942 "赫哲調査報告", 人類學雜誌 57(4): 147-154.

長谷部言人

1944 "人種", 大東亞民族誌, 東亞經濟懇談會 編. 東京: 鱒 書房. pp.37-85.

川村湊

1996 '大東亞民俗學'の虛實. 東京: 講談社.

大貫良夫

1988 "泉 靖一: 日本アンデス學の創始者", 文化人類學群像: 日本編, 綾部恒雄 編. 京都: アカデミア出版會. pp.411-432.

島本彦次郎

1955 "秋葉隆博士の生涯と業績", 朝鮮學報 9: 303-322.

岩崎繼生

1933 "朝鮮民俗學界の展望", ドルメン 1933年 4月號. pp.12-115.

涉澤敬三

1939 "小序", 朝鮮多島海旅行覺書. アチック・ミューゼアム編. 東京: アチック・ミューゼ アム. pp.1-3.

佐竹義輔

1963 西イリアン記. 東京: 廣川書店.

波多江信廣

1968 西イリアンの思い出. 東京: 川島書店.

泉貴美子

1972 泉靖一と共に. 東京: 芙蓉書房.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編纂委員會

1974 紺碧遙카니 -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 東京: 耕文社.

藤本英夫

1994 泉 靖一傳. 東京: 平凡社.

柳田國男研究會

1988 柳田國男傳. 東京: 三一書房.

石田英一郎

1949 "編輯後記", 民族學研究 14(2): 83.

1970 "民族學から文化人類學へ", 石田英一郎全集第四卷. 東京: 筑摩書房. pp.14-20.

小山榮三

1944 南方建設과 民族人口政策. 東京: 大日本出版株式會社.

臺北帝國大學文政學部史學科 研究年報 1: 455-457, 1934年 發行.

臺北帝國大學文政學部史學科 研究年報 2: 421 & 423-424, 1935年 發行.

臺北帝國大學文政學部史學科 研究年報 3: 382, 1936年 發行.

臺北帝國大學文政學部史學科 研究年報 4: 581-582, 1937年 發行.

南方土俗 4권 4호 pp.36-37, 1938년.

南方土俗 5권 1 · 2호: 71.

臺北帝國大學文政學部史學科 研究年報 1: 451-455, 1934年 發行.

臺北帝國大學文政學部史學科 研究年報 2: 421, 1935年 發行.

江口圭一

1991 十五年戰爭小史. 青木書店.

江上波夫

1943 滿洲國の諸民族概況と目下重要な民族問題. 東京: 和光社.

蒙疆新聞社

1941 蒙疆年鑑.

南方研究會, 南方情勢 69호(1942년 7월), 南方情勢 75호(1943년 1월), 南方情勢 81호(1943년 7월), 南方情勢 82호(1943년 8월). 南方情勢社.

社會學徒 8卷 7號, 1934年 7月號, 社會學徒社 發行.

許木柱

1993 "臺灣民族學研究的回顧與展望", 民族學報(國立政治大學) 20: 143-150.

Asad, Talal

1973 *Anthropology and the Colonial Encounter*. London: Ithaca.

Boas, Franz

1919 "Scientists as Spies," Nation 1919年 12月 12日字.

Gould, Stephen Jay

1989 *Wonderful Life: The Burgess Shale and the Nature of History*. New

York: W.W. Norton.

Malinowski, Bronislaw

1922(1961) *Argonauts of the Western Pacific*. New York: E.P. Dutton.

Memmi, Albert

1967 *The Colonizer and the Colonized*. Boston: Beacon Press.

Nakao, Katsumi

1999 "Japanese Colonial Policy and Anthropology in Manchuria," *Anthropology and Colonialism in Asia and Oceania*, ed. by Jan van Bremen & Shimizu Akitoshi. Surrey: Curzon. pp.245-265.

Nelson, Hank

1980 "*TAIM BILONG PAIT:* The Impact of The Second World War on Papua New Guinea," *Southeast Asia Under Japanese Occupation*, ed. by Alfred W. McCoy. New Haven: Yale University Southeast Asia Studies. pp.204-220.

Shimizu Akitoshi

1999 "Colonialism and the Development of Modern Anthropology in Japan," *Anthropology and Colonialism in Asia and Oceania*, ed. by Jan vanBremen & Shimizu Akitoshi. Surrey: Curzon. pp. 115-171.

Thomas, Nicholas

1994 *Colonialism's Culture: Anthropology, Travel and Governmen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Utsurikawa, Nenozo 1921 "Demon Design on the Bornean Shield: A Hermeneutic Possiblity," American Anthropologist 23: 138-148.

van Bremen, Jan & Shimizu Akitoshi

1999 *Anthropology and Colonialism in Asia and Oceania*. Surrey: Curzon.

〈**Key concepts**〉: Japanese Colonialism, Colonial Anthropology, War, Taiwan, Korea

Anthropology of Colonialism and War during the Imperial Japan: Scholars and Scholarship at Taihoku Imperial University (Taiwan) and Keijo Imperial University(Korea)

Kyung-Soo Chun*

Contents

I. Introduction: Why?
II. Balancing Perspectives: How?
III. Imperial Universities in the Colonies
IV. Classrooms and Academic Societies: Making Schools of Anthropology
1. Taihoku Anthropologists
2. Keijo Anthropologists
3. A Comparison of the Two Schools
V. Anthropology during the "Greater East Asia War"
VI. From Colonialism to

The discipline of anthropology originated in the West, and this naturally put Japan at the top of the list in East Asia, becoming a link in the formation of the discipline in this region. When we consider that it is the nature of anthropology to focus on the particularity of culture, rather than

*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universality, the development of anthropology through the process of imitation must necessarily have its limits. The habit of trying to reproduce the academic structure and perspective in the West can also be found in the anthropological debate on colonialism. As a result, instead of searching for originality, it paves the way for rent.

The introduction of Western anthropologys debate over colonialism into Japanese anthropology has not been an issue. However, the application of it to anthropology in Japan has forcibly limited the understanding of Japanese anthropology during imperial eras, which was formed around the dual axes of colonialism and war, from only the perspective of colonialism. Although claiming to discuss the same subject, the question of what perspective is being applied and on what concepts it is based has meant that the process and results of interpreting Japanese history is different.

Following Japans defeat in the war, the ethnological research put out in the Japanese Ethnological Society, of which Oka Masao had been president, was solidified by its editor Ishida Eiichiro in 1948. An editorial committee was formed in 1949, and with Ishida those taking part in editing are Izumi Seiichi, Mabuchi Toichi, and Miyamoto Nobuto. Mr. Miyamoto and Mr. Mabuchi are at Taihoku Imperial University, and Mr. Izumi is at Keijo Imperial University. They are rare ethnologists in Japan, having accumulated decades of experience in field research throughout East Asia-from Manchuria and Mongolia in the north to Indonesia and New Guinea in the south (Ishida 1949: 83). The organization of the editorial committee around people trained in ethnology at the imperial universities of the colonies demonstrates the extent to which ethnographic pursuits in the colonies later became the central basis for the Japanese Ethnological Society. From 1950, Miyamoto Nobuto was replaced in the editorial committee by Sugiura Kenichi, a specialist in Micronesia. The committee

was thus triangulated around three people, each of whom had been trained in one of Japans three major colonial regions.

Japanese anthropology shares an indissoluble bond with colonialism. Izumi was active on the continent based in Korea, Mabuchi in southeast Asia based in Taiwan, and Sugiura in Micronesia (Shimizu 1998). All three had lengthy careers following the imperatives of imperialism in the colonies. Japanese anthropology, collaborating with the war in the colonial period, had no choice but to accept defeat at the end of the war. Anthropology and war were in collusion. The organization of the journal *Minjokukaku Kenkyu*(*Studies in Ethnology*) reflected this climate materially and symbolically.

In Taiwan there has been some criticism of anthropological work done during the colonial period, but many elements of it were passed on. In post-1945 Korea, there was no move whatsoever in preserving any of the perspectives on anthropological work from the colonial period. It was not a matter extend; until now there has been no mention of the issue. Everything associated with the colonial period stands unquestioned or has been completely erased. Discussion of the issue has become taboo.

After the war, Japanese anthropologists working in Taiwan were able to discuss their recollections and reflections on the past through a range of channels. In Korea, however, this was impossible, and anthropologists who had worked there seemed to have pledged to not to speak. Scholars who returned from Taiwan had opportunities to talk about their work, but those coming home from Korea remained consistently silent. They have by now passed away. Things spoken of have remained spoken of to the end, and silence has remained silence.

In contemporary Japanese anthropology, work on colonial Korea and the advance into the continent has been left behind, unlike work on Taiwan,

southeast Asia, and southern China, largely because of political changes, but if look at the internal dynamics of the discipline itself, it seems also related to an opposition between reflection and silence. By reflecting, it became possible to escape the legacy of defeat, but remaining silent, this was impossible. The problem is that of past versus present. The past is history, but thinking about history is memory existing in the present. Silence tries to imprison memory, but an imprisoned memory merely focuses its energy in another direction. The energy of an imprisoned memory operates by misinterpretation. This is reflected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is also at work within the discipline of anthropology.

Curses and condemnation demanding repentance and reflection are only emotional war. This sort of simplifying dichotomy cannot nourish a consciousness or reinterpretation of history. It works only as a poison. The dead cannot speak. However, a glossalia through shamans is possible. History without lies is divided up into pieces through silence, but work of connecting the scattered pieces into a single narrative continues in the memories we all carry. The question of how well the narrative is formed rests on the capacity of memory. Although the dead cannot speak, those who die still silent can borrow the lips of a shaman to tell their story. The living can make their memory for them. It is not a denunciation of having died without telling this story, but the efforts of the living built on the testimonies of the dead join together to be reformed into memory. I see this as ethnographic work relevant for scholarship.

Akiba Takashi, who died in a newly built storeroom known as Blue Hill Lodge (Shimamoto 1955: 303), erected Korean guardian poles of the Spirit General in front of his research office at Aichi University, built a small Korean-style Buddhist hermitage in his home, after salvaging his experiences in colonial Korea tried to recreate them at his office and at

home. His memory of the past was still alive, but what was his reason for remaining silent? He meant to store romance and memory, but the reality of things confined him in silence.

As the invasion was reaching its peak in 1931 with the Manchurian Incident and the Sino-Japanese War in 1937, Izumi and Mabuchi were entering anthropology as researchers under their teachers, and with the outbreak of the Pacific War in 1941 they were given the chance to practice their craft as independent scholars. Both were trained in the field of anthropology at the high peak of colonialism and both again worked as specialists during the war time. For the decades they worked as researchers in anthropology, they were unable to avoid the war. The connection between the war and the many opportunities they had to do anthropological fieldwork must be recognized, and the connection between war and concerns over the academic perspectives mobilized for the war effort. In-depth analysis, understanding, and critique of this point is a responsibility for the next generation of anthropologists and in the process also offers the opportunity to build a new anthropology. The issues directly connected to the identity of Japanese anthropology and the indigenization of anthropology (an imported discipline) can be discovered here.

One comparison necessarily calls for further comparison. Comparison demands unending work. A not inconsiderable number of anthropologists worked for the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Americas wartime secret services agency. One product of this work was Ruth Benedicts research on Japan,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Later on, directly critical work on scholars who had been active in intelligence during the war remained rare in both the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and U.S. anthropology in general. In the late 1960s, critique of American anthropologists who had worked southeast Asia, originating in Thailand and Vietnam, ultimately

resulted in the expulsion of those who had cooperated with intelligence agencies, and one ended up committing suicide. In 1971 the Mead Committee in the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was set up to deal with the Camelot Project in relation to Thailand. To put it concisely, the result was a differentiation between the Second World War and the Vietnam War. Evaluating the participation of anthropologists in war differs with time, demanding different judgments.

Before passing moral judgments on anthropologists involved in Japans wars of invasion, we face the task of rigorous analysis. Whatever the form reflecting its time, the status of war crimes (cf. Ishida Eiichiro's warning) is given to anthropologists who participated in the war, and we require justice in accordance with the details and extent of the war crime. In this process, we can create a set of ethical guidelines for ourselves and future anthropologists.